

1. 돈 - 4

물질주의 (物質主義:MATERIALISM)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 5:10)

* * *

1. 죄의 근본에는 물질주의가 있다

‘물질주의’는 물질적 만족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윤리학의 한 경향이다(표준국어대사전). 물질주의와 같은 말은 ‘유물론’이다. 이것은 만물의 근원을 물질로 보고, 모든 정신 현상도 물질의 작용이나 그 산물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이다(표준국어대사전). 물질주의 또는 유물론의 탄생은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던 순간이다. 하와는 하나님이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음에도 그 나무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여 그 열매를 따먹었다(창 3:16). 아담도 하와가 주는 열매를 거절하지 않고 먹었다. 그들은 죽음을 가벼이 여기고 물질이 주는 만족을 얻고자 했다. 이것은 죄의 근본에 물질주의가 있었던 것을 말해준다.

그들이 현장에서 얻으려던 만족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었다(요일 2:16). 하지만 애당초 사탄이 하와를 유혹했던 내용을 보면 물질주의가 약속한 만족은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것’이었다(창 3:4-5). 흠으로 빚어진 아담과 하와는 근본적으로 이 만족을 얻고자 했고, 그 결과 유물론의 이론처럼 스스로가 자신의 근원이 되어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존재가 되고 말았다. 사람이 재물로 교만해지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체하는 것이다(겔 28:5-6).

창 3:4-5

목숨이 물질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라도 인정한다(마 16:26; 눅 12:23). 하지만 모두가 자기들이 인정하는 사실대로 살고 있지는 않다. 오히려 그 반대로 사람들은 물질이 목숨보다 중요하듯 살고 있다.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노예로 삼아버린 물질주의가 지금의 세상도 지배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에게 살 길을 열어줄 것 같아 그것을 쫓아가지만, 그리하면 그리할수록 물질에서 만족을 얻기보다 물질이 스스로 날개를 내어 날아가는 허망함을 경험한다(전 5:10; 잠 23:5). 사람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물을 저축하려는 악을 행하면 이러한 결과를 맞는다(렘 2:13). 그 가운데 최후의 허망한 경험은 ‘죽음’이다. 사람이 죽는 순간 물질은 사람을 철저히 배신하고 떠나버리고 마는 것이다(시 49:10-12; 전 2:21; 딤펢전 6:7).

시 49:10-12 _____

Q. 내가 물질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애쓰는 삶의 영역이 있는가?

전 2:4-11 _____

Q. 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도 얼마든지 물질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 이유는?

전 9:7-10 _____

* * *

2. 물질주의는 하나님을 잊게 하고 불행을 가져온다

물질주의를 쫓는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은 ‘하나님을 상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시 10:3-4; 14:1-2).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만의 경우가 아니다. 집안의 상속문제로 예수님을 찾아와 질문을 던졌던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대표적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부활이 없다고 믿었다(눅 22:23-24). 그들은 ‘종교인’이면서 이후 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 땅의 문제와 관련해서만 하나님을 필요로 했다(참조, 눅 12:13-14).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비웃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다(눅 16:13-14). 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순진하다 못해 어리석게 보였다. 하나님의 일도 다 돈으로 된다는 생각에서였다.

그들에게는 돈 없이는 하나님도 없는 분이나 다름이 없었다. 그들의 ‘견고한 성’은 하나님이 아니라, 부자의 재물이었다(잠 18:10-11).

잠 18:10-11 _____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초기부터 자기 백성이 물질주의로 인해 하나님을 잊을 것을 염려하셨다(신 8:12-14a).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염려하신 결과였다. 물질을 삶의 중심에 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외식으로 전락하고, 내면에는 재물이 섬김의 대상으로 바뀐다. 그때부터 사람에게서는 불행이 시작되고, 온갖 악이 자라나는 것이다(딤후 6:9-10).

물질주의가 사람의 삶을 지배하는 곳에 나타나는 네 가지 대표적인 표시가 있다. 첫째, 물질주의는 사람을 차별한다. 부자가 대접을 받고, 가난한 자는 천대를 받는다(약 2:1-4). 둘째, 물질주의는 내 주머니만 알고(약 5:1-3; 왕상 21:2-4; 출 20:17; 수 7:1, 20-24), 형제나 이웃의 사정에 냉정하다(약 5:4, 6; 요일 3:17). 셋째, 물질주의는 사치하고 방종한다(눅 21:34; 약 5:5-6). 넷째, 가장 극단적인 물질주의의 모습으로서 말과 행동이 포악하고, 거침없이 남을 해친다(시 52:1-7; 마 26:14-16).

신 8:12-14a _____

Q. 외적으로 종교적이고, 내적으로 물질적인 이중성이 내 안에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기 위해 ‘나는 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나의 답은 무엇인가?
 눅 12:13-21 _____

Q. 나의 소유에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미래의 안정된 삶을 물질적으로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힘이 되는가?
 히 13:5-6 _____

* * *

3. 인생 끝날까지 물질주의를 경계하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물질주의의 유혹은 사람의 평생을 따라다닌다. 그 누구도 물질주의의 유혹을 한 번 물리쳤다고 평생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 마귀는 천하 만국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들이대며 예수님을 물질주의로 유혹했는데 예수님이 이를 물리치시자 “얼마동안” 떠나 있었다(눅 4:13).

물질주의의 유혹은 일확천금의 모양으로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일상에서는 ‘염려’라는 모양으로 찾아와서 우리의 우선순위를 ‘물질의 만족’에 두게 만든다(마 6:25-34). 또한 크던 작던 뭔가 돈과 관련된 자랑거리가 생기면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떠나 물질주의에 편승하게 만든다(렘 9:23-24).

최대로 경계해야 할 물질주의 유혹은 내 안에 잠재해 있는 ‘탐심’이다(눅 12:15; 참조, 출 20:17). 성경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못 박는다(골 3:5). 어떤 것을 탐하려는 욕망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마음에 그것이 우상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표시이다.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 우상의 속성처럼 모든 감각을 잃어버린다(시 115:4-8). 물질을 탐하는 사람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고(엡 4:19), 앞에서 언급한 물질주의의 네 가지 폐단, 즉 사람차별, 냉정함, 사치와 방종 그리고 포악함을 나타내게 된다.

시 115:4-8 _____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제 사례를 통해 물질주의를 경계하는 두 가지 방식을 배운다. 첫째는 물질에 대한 양보이고(창 13:8-9), 둘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치부하게 했다고 말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창 14:23). 우리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넉넉한 공급하심이 있다. 그러므로 물질에 연연하여 관계를 파괴하거나(고후 9:8; 엡 3:20-21) 물질 때문에 사람에게 평생 매여 살 이유가 없다.

Q.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의 사정이 느껴지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히 4:15; 엡 4:19-20 (참조, 빌 2:5-8) _____

* * *

기도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 사탄의 물질주의 유혹이 오늘날도 세상을 뒤 덮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와 귀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말미암는 것을 압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돌보기를 힘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